

한국웃 입은 프랑스판 '양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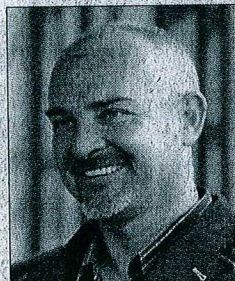
국립극단 첫 해외 진출작 '귀족놀이'

프랑스의 희극을 완성시킨 극작가 몰리에르(1622~1673)의 희곡 '귀족놀이'가 한국 웃을 입는다면?

국립극단(예술감독 이운택)이 11일부터 24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무대에 올리는 '귀족놀이'는 원작을 그대로 살리되 음악, 춤, 의상 등을 우리 식으로 꾸민다. 원작의 배경이 되는 프랑스 바로크 음악가 장 밥티스트 륄리의 음악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라이브로 편곡 연주되고 막간과 극중에 등장하는 춤은 국립무용단의 화춤, 갈춤, 부채춤 등 전통춤으로 바뀐다. 의상도 동서양 퓨전 스타일로 새롭게 디자인됐다.

국립극단 기획공연 시리즈 '세계명작무대'의 하나로 올려지는 '귀족놀이'는 원래

비니에 외에 마돈나, 비옥 등 세계 톱스타들의 뮤직비디오 조명감독을 맡았던 조명디자이너 조엘 우르베이 등 프랑스 스태프가 참여했다. 1670년 초 연시 작가 몰리에르가 직접 연기했던 주인공 주르맹 역에 '문제적 인간 연산'의 타이틀롤을 맡았던 이상직, 후작부인에 과명화가 캐스팅되는 등 국립극단 중진배우 11명이 무대에 오른다.



연출자 에리 비니에

몰리에르 원작... 의상·음악 등 동서양 퓨전 돈많은 평민의 신분상승 둘러싼 소동 다뤄

'귀족수업'이란 제목으로 국내에 알려진 작품. 프랑스판 '양반전'으로 돈 많은 평민 주르맹이 후작부인을 사랑하면서 귀족 계급에 편입되기 위해 벌이는 온갖 소동을 다루었다.

연출은 프랑스 브리타뉴 국립연극센터 소장 겸 로리앙 극장 예술감독인 에릭 비니에(44)가 맡았다. 국립극단이 프랑스 외무부 예술진흥협회의 추천을 받아 초빙한 비니에는 35세에 최연소 프랑스 국립연극센터 소장에 임명됐을 정도로 실험성과 연극성을 고루 갖춘 연출가. 특히 영화 '연인'의 원작자로 유명한 누보로망의 대표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작품 연출을 도맡기도 했다.

비니에는 "기존 작품이 귀족계급에 끼어들려고 벌이는 주르맹의 소동을 단순한 풍자극으로 다루었다면 이번 무대는 주르맹이 후작부인을 만나 문화와 예술에 눈뜨고 이에 접근해가는 과정을 한 남자의 꿈과 환상이라는 측면에서 풀었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그는 또 "바로크시대 소리처럼 들리는 한국 전통음악을 비롯해 매력적인 전통춤 등 이번 국립극단과의 작업은 매우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사실 서양 고전에 동양의 옷을 입혀 공연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자주 시도되는 형태. 일본의 명감독 구로자와 아키라가 1955년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일본 시대극으로 각색한 '란'이 선풍



전통국악기로 연주하는 바로크 음악과 한복으로 개량한 의상을 선보이는 프랑스 희극 '귀족놀이'. 주인공 주르맹 역의 이상직(가운데) 등 국립극단 배우들이 연습하고 있다.

적 인기를 얻은 이후 서양 고전을 일본 가부키풍으로 제작하는 유행을 낳았다. 프랑스의 고전을 한국의 전통으로 포장한 이번 작업이 동서양의 불협화음을 낳을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작품은 한국 공연 후 10월 11~16일 프랑스 브리타뉴 로리앙 극장으로 무대를 옮긴다. 이로써 국립극단 '귀족놀이'의 로리앙 공연은 프랑스측과 공동제작을 통해 출연료를 받게되는 공식적인 첫 해외 진출작이 된다. 국립극단의 과거 작

품 '피고지고 피고지고', '맹진사댁 경사', '무의도 기행' 등이 해외에서 공연된 적은 있지만 모두 행사 위주의 단발성 초청공연이었다.

로리앙에서는 또 이번 공연과 함께 한국의 영화와 음악, 음식문화가 소개되는 한국문화축제가 열린다. 로리앙 극장측에서는 이번 한국문화축제를 원년으로 '로리앙에서 로리앙으로(오리엔트에서 오리엔트로)'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02-2280-4115).

장지영기자 jyjiang@kmib.co.kr

2023 9/6